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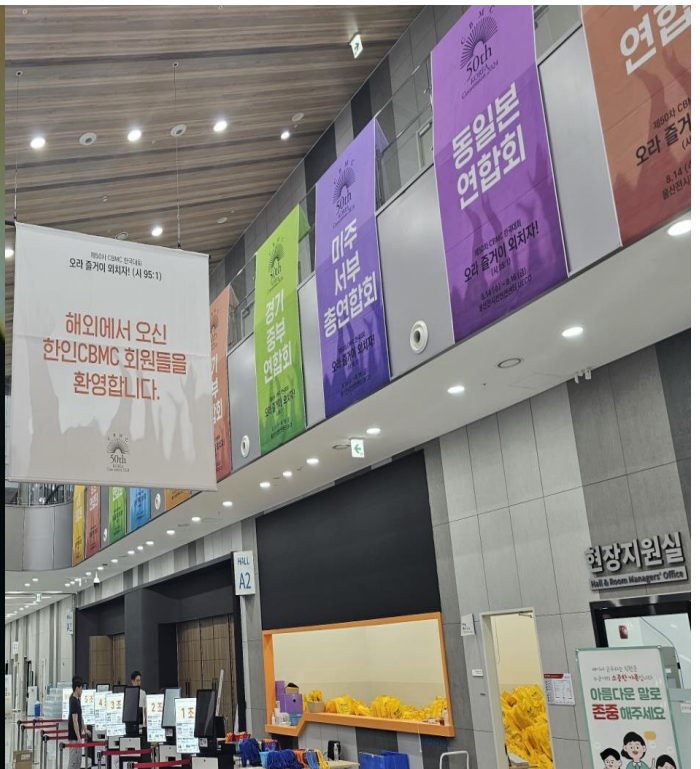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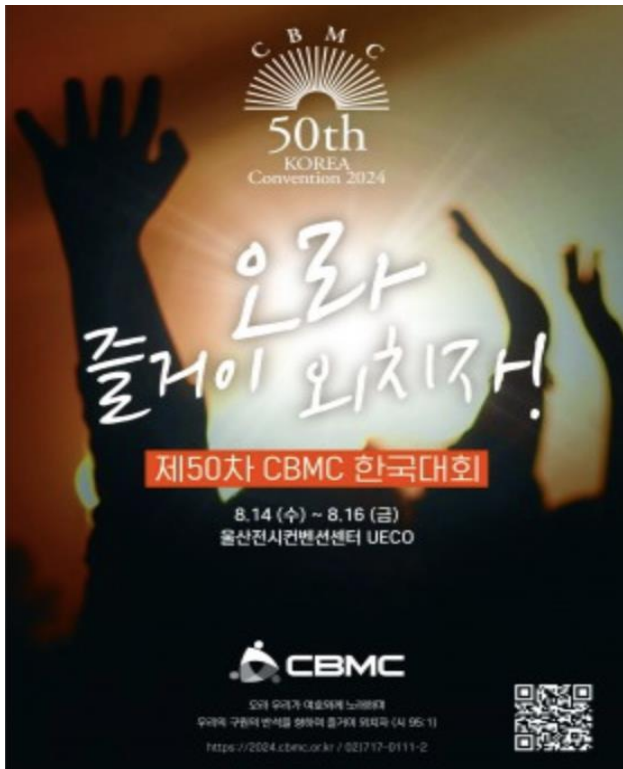
CBMC

미주서부한인 KCBMC 월간 뉴스레터
NEWSLETTER

비즈니스 세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한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비즈니스 세계 가운데 당신을
'일터 사역자'로 부르셨습니다.

지난 8월 14일 ~ 16일까지 울산에서 개최된 제5차 CBMC 한국대회 참가 소감 특집





강승태 총회장

"오라 즐거이 외치자!"
(시95:1,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미주서부 총연합회
각 연합회장님, 지회장님들
그리고 동역자 회원님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문안드립니다.

저희 서부총연팀(이봉우 남가주연합회장, 손대운 회장 부부, 최윤정 SF지회 부회장, 강승태 총회장)은 멋진 대회를 참석하여 도전과 은혜 충만하여 돌아왔습니다.

금번 제50차 한국 CBMC 울산대회는 성령님의 임재가 충만한 대회 그자체였습니다. 중앙회 최범철 회장님과 울산 연합회 정성식 회장님과 준비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헌신하시고 수고하신 동역자님들이 계셨기에 가능했으리라 믿습니다.

지난 4월 샌프란시스코 대회의 은혜와 감동이 채가시기 전이라 더욱 설렘과 기대가 컸습니다. 처음부터 한 순서도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도로 철저히 준비했음을 느꼈습니다. 각계 각층의 다양한 분야에서 엄선된 강사 및 출연자 한분 한분이 3천여 일터 사역자 회중들과 함께 놀라운 은혜를 나누며 공유하는 대회였습니다.

대회 주강사로 초청된 이찬수목사(분당우리교회 담임)님은 '하나님의 크신 일을 기대하라'(롬15:17-21)는 제목으로 첫째는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행하신 일을 자랑하라, 둘째는 미래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위대한 일을 기대하며 살아갈것을 강조 하셨습니다. 셋째에서 놀던 우리의 신앙이 바다를 만날때 진정한 신앙 성장을 이룰것이라 도전하시며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다시말해 진짜 바다를 만나는 것은 '어떤 흙탕물이 들어와도 하나가되고, 온갖 오염물이 들어와도 소금으로 다 정화해 내는 것이 바다의 신비'라고 강조 하셨습니다.

<대회 동영상들은 유튜브에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으며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는 시간 이었습니다.

미래 지향적인 CBMC의 방향을 제시했으며 AI 시대를 선도하는 다음세대와 차세대와 함께 성장하는 CBMC의 모델을 선보였습니다. 운영상으로는 매끄러운 진행과 런치 및 디너의 풍성함이 돋보이는 대회였습니다.

특별히 해외 한인 동역자들을 섬기며 배려하시는 모습이 감동이었습니다. 대회직후 울산시 남구의 섬김으로 팸투어가 진행 되었는데 '장생포 고래 박물관'을 비롯하여 '현대 조선소', 자동차 공장, 한국 국가산업단지등을 돌아보면서 한국의 근대화와 발전상을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대회중에 만남이 대회후까지 이어지며 우리 CBMC 일터 사역자들의 숨은 일꾼들을 통하여 받은 은혜와 깨달음이 풍성한 잊지 못할 대회로 제 가슴에 남았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하는데요 대회 참석에 들어간 비용이나 시간이 전혀 아깝지 않은 아름다운 여행 이었습니다.

서부총연 많은 동역자님들이 앞으로 이런 귀한 대회에 많이 참석하셔서 CBMC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도전받아 각 지회에서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더욱 확장하는데 전심전력으로 달려갈것을 적극 권유 합니다.

모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차례

한국대회	1쪽
강승태 총회장 한국대회 후기	2쪽
이봉우 남가주연합회장 후기	3쪽
손대운 직전 샌프란시스코 회장	3쪽
제50차 한국대회 은혜의 순간	4-5쪽
한국대회의 이모저모.	7-9쪽
산타클라라 창립 1주년	10쪽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	11쪽
광고	12쪽
- 우리 지회 월간 스토리	
- 서부총연 조직도	
총회 및 모임 안내	13쪽



이봉우
남가주연합회 회장

살롬!
어느덧 구월, 가을의 문턱에 들어서
어서는 이때에 사랑하는 모든
CBMC 멤버들께 주안에서 문
안을 드립니다.

금번 8/14-16 일 까지 울산전시
컨벤션 센터에 개최되었던
2024년도 CBMC 대회에 참석
하였던 소감을 나누고자합니다.

8/14일 새벽에 강승태회장님,이봉우,최운정 삼인이 인
천공황에 도착하여 KTX 로 울산역에 도착하고 잠시후
손대운회장 부부가 합류하여 피곤한데도 대회장으로,
받을 은혜를 사모하며 향하였습니다.

무더운 날씨가 무색할만큼 잘 짜여진 프로그램과 더불어
참가자의 열기또한 뜨거움을 보며 부러움을감출수
없었습니다.

오랜세월 CBMC에 몸담아왔던 저이지만 이번대회는 특
별하였습니다. 강사들의 설교와 강연은 물론,참가자들
과의 네트워킹 시간을 통해 다양한 관점과 경험을 나누
며 많은 영적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신앙과 비지네스를 어떻게 조화롭게
근접하여 운영할수있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을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옷깃을 여미고 , CBMC 의 비전과 함께 성
장해나가고 싶습니다

많은 믿음의 형제들과 한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
을위해 방법과 장소 위치가 다를뿐 한목적, 한방향을
행해감이 참으로 고무적이며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문득, “또 여기있다 저기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안에 있느니라”(눅17:21)

말씀이 떠 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 나의 내면 깊은곳
에서 성령의 강한 임재를 느끼며, 주안에 거하는 형제들
의 귀함과, 작은 천국을 맛볼수있는 CBMC라는 울타리
에 나를 머물게하신 주님의 은혜가 흘러넘침을 느꼈습
니다.

지난 수년간 많은 인고의 세월을 우리는 경험하였고 ,
그로인해 개인도 ,교계도, 또한 우리 CBMC도 약화되었
습니다. 그러나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자가
있느니라”(롬11:5)하신 말씀과 같이 ,
이제 우리는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손의 손을 굳게 붙
잡고 주신 사명을 새롭게하여 일터에서 천국을 확장시
키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사명자들이 되기를 기
도합니다



손대운
샌프란시스코 지회
직전회장

50차 한국 CBMC
울산대회를 다녀와서..

금년대회는 “오라 즐거이
오 치자!” 란 명제 아래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의 자유와 회복,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대회로 국내외 3천여명
참가한 주님께서 운행한
멋진 대회였습니다.

세련되고 품위 있는 시간과 공간의 조화가
순서를 맡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와 감동을
참석한 모든 공역자들이 공감하였고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미서부총연에서는 6명 등록하였으나
출발시간이 달라서 행사 당일 8/14일 12시에
울산 전시 컨벤션센터 (UECO)에 등록하면서
만날 수 있었고, 장거리 비행과 KTX 열차들로
휴식없이 달려왔으나 곧바로 첫째 날
대회일정에 참가했고 10시 이후에 배정된
숙소에 체크인 했으나, 숙소 문제가 대회 전체
평가를 보면 불만이 제일 많았습니다만 그로
인해 덕분에 더 좋은 인연을 (김원곤 선교사)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은 순간순간 사람을 통해서
조건과 형편을 해결해 주시니까요.

대회기간 중 조식은 각자 해결해야 했으므로
저희 미서부총연팀은 한 숙소에 배정
(울산과기대 기숙사:UNECO) 됐고 조식을
조달해야 되는데 인근엔 아무것도 얻기가
곤란했기에, 강승태 총연회장께서 새벽4시에
인근을 배회하던 중 김원곤 선교사를 만남이
이후에 많은 체험을 한 귀한 인연의
시작이었습니다.

저희들의 사연을 듣고있던 김원곤 선교사는
즉각 반응을 보여주며 저희들을 위한 묻지마
성령인도로 오전시간을 직접 운전하며 경주
관광과 맛집 등 일정을 함께하며 서로
알아가기 시작하며 대회 후에 DMZ관광을
약속해 주시고 이를 기점으로 이성복 회장,
전용수 부회장, 구재서 목사, 이한희 목사,
현상윤 부부등을 만남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후 사연은 다음에 계속됩니다.

50년 희년의 해를 맞아, 울산에서 개최된 제50차 CBMC 한국대회! 뜨거웠던 은혜의 순간을 나눕니다!



1일차(8월 14일, 수)

[첫째날-개막공연, 개회식]

-W필하모닉 오케스트라/CBMC 연합합창단
<https://www.youtube.com/watch?v=yScVaUalUos>

-간중 오미희 방송인
<https://www.youtube.com/watch?v=j1IWuNTbHfM>

-나에게 CBMC란 1 오영석 대회부회장
<https://www.youtube.com/watch?v=fgaEw-YdaPU>

-간중 김하민 작가
<https://www.youtube.com/watch?v=e0wryWO9wm9k>

[첫째날-저녁집회]

-특강: 애터미(주) 박한길 회장
<https://www.youtube.com/watch?v=dMNL3QdH-Kw>

-희년의 밤
1) 샌드아트 김상식 목사
<https://www.youtube.com/watch?v=-U5OHEmjVPO>

2) 한반도 블러드
<https://www.youtube.com/watch?v=jyJStmVJWul>

3) 국윤중 교수(테너)
<https://www.youtube.com/watch?v=UT19uAzKZls>

4)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https://www.youtube.com/watch?v=PzldJB0dMRk>

2일차(8월 15일, 목)

[둘째날-오전집회]

-아침 경건회: 권규훈 목사(번영로교회)
<https://www.youtube.com/watch?v=nbEtZuZrWmE>

-특강: 데이빗 마이어스(미국CBMC 대표)
<https://www.youtube.com/watch?v=0VzQVyXCaVa>

-특송: CBMC 서울콰이어
<https://www.youtube.com/watch?v=zX0rGw6em84>

2일차(8월 15일, 목)

[둘째날-오전집회] - 계속

-특강: 박성민 대표(CCC)
<https://www.youtube.com/watch?v=Szlw1LMzPgM>

-나에게 CBMC란 2 김옥동 중앙부회장
<https://www.youtube.com/watch?v=YwLiHP5gz8I>

[둘째날-오후집회]

-간중(구제서 목사)
<https://www.youtube.com/watch?v=1ikhnesmLPY>

-국내 사역 소개
<https://www.youtube.com/watch?v=DPMCrpg7BMo>

-특송: 김방술 소프라노
<https://www.youtube.com/watch?v=ylGhSvrcmL4>
[나에게 CBMC란 3 이병기 중앙운영이사
<https://www.youtube.com/watch?v=-Bx3twFywgU>

-토크 콘서트(F.CUZ)
<https://www.youtube.com/watch?v=NXaiid6GyUU>

-해외 한인CBMC 사역소개
<https://www.youtube.com/watch?v=rioKSb0qj6c>

-특강: 김민준 대표(초원비전)
<https://www.youtube.com/watch?v=OrB5SFPTeCE>

-특송: 피데스콰이어
<https://www.youtube.com/watch?v=f5CB8ckPzJ8>

-특송: CBMC 전북합창단
https://www.youtube.com/watch?v=EhPlnog_HL8

[둘째날-저녁집회]

이찬수 목사(분당우리교회) - 요청에 의해 비공개입니다.



50년 희년의 해를 맞아, 울산에서 개최된 제50차 CBMC 한국대회! 뜨거웠던 은혜의 순간을 나눕니다!

3일차 (8월 16일, 금)

[셋째날-폐회식]

-아침 경건회: 김성수 목사(울산제일교회)

<https://www.youtube.com/watch?v=ikYmJ3DwmHE>

-특강: 크리스 심슨(국제CBMC 대표)

<https://www.youtube.com/watch?v=l5MSDSkJIC4>

-특송: CBMC 자녀팀

<https://www.youtube.com/watch?v=j8zkaxLgAyI>

-폐회예배: 이호상 목사(울산교회)

<https://www.youtube.com/watch?v=sQjibfpO3Rw>

-특송: CBMC 울산연합회

<https://www.youtube.com/watch?v=YEL5JV-MsqI>

*[제50차 CBMC 한국대회 찬양단]: 바나바밴드

<https://www.youtube.com/watch?v=6MdGU9P2StU>





와~~~! 그런데 우리 팀은 어디 계실까요?



여기요! 여기!

미주서부총연기







울산 가 보셨어요?
엄청나지요?

장생포고래빵?!
맛은 어때요?
엄청 궁금한데요.



산타클라라 CBMC 창립 1주년

북가주 산타클라라 CBMC(지회장 실비아 리)가 창립 1주년을 맞아 지난 7월11일 산타클라라 담소 식당에서 감사 예배를 드렸다.

실비아 리 회장은 환영인사에서 '지난 1년동안 눈동자처럼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지난 4월 샌프란시스코 대회에서도 쓰임 받는 지회가 되어서 감사드립니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CBMC 될것을 다짐했다. 김이수 지도목사는 '선한 일을 하라'(엡2:10)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당일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찬양인도 홍성준목사, 대표기도 이진 총무, 성경봉독 실비아리 회장, 설교 김이수 지도목사, 환영인사 실비아 리 회장, 축사 강승태 총회장, 격려사 손대운 회장, 축도 조수아 김 목사.



김이수 지도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좌측은 실비아 리 지회장



손대운 SF CBMC 직전 회장이 격려사를 하고 있다. 좌측은 실비아 리 회장.

🍎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

툴스토이의 단편소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주인공 마르틴은 구두를 만들고 고치는 제화공입니다. 착하고 성실한 그가 절망에 빠졌습니다. 5년 전에 자식 두 명과 아내를 하늘나라로 보냈는데, 근래 하나 남은 막내아들까지 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는 매일 술로 시간을 보내며, 자신도 빨리 죽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한 기회에 성경을 접하고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에 감동을 받은 그는 자신의 삶을 반성하며 새로운 희망을 되찾아 성경 읽기에 열중했습니다.

하루는 성경을 읽다가 잠깐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르틴, 내가 내일 찾아 갈테니 창밖을 보아라.”

마르틴은 그날 하루 종일 창밖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언제쯤 오시려나"... 중얼거리며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온다는 하나님은 오지 않고, 창밖에 늙은 청소부가 눈을 맞으며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르틴은 그를 가게 안으로 들어오게 한 뒤, 따뜻한 차를 대접하였습니다.

청소부를 내보내고 두어 시간이 지나 창밖을 보니, 아기를 안은 여인이 눈보라 속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인을 가게 안으로

맞아들여 먹을 것을 대접하고 옷을 사주었습니다.

또 시간이 흘러 거의 해가 질 무렵, 창밖을 바라보니 사과를 파는 모든 늙은 노파가 사과를 훔친 소년을 붙잡고 야단치고 있었습니다.

마르틴은 밖으로 나가 소년의 죄를 뉘우치게 하고, 사과 값을 대신 갚아주며 노파가 소년을 용서토록 권유하여 원만하게 해결해 주었습니다.

마르틴은 날이 어두워지자,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마르틴은 성경을 읽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어둠속에서 자신이 낮에 대접했던 늙은 청소부와 아기를 안은 여인, 노파와 소년이 나타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르틴, 네가 오늘 만난 사람들이 바로 나다. 너는 나를 대접한 것이다.”

이후 마르틴은 꿈에서 깨어나 펼쳐져 있는 성경을 보니,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내가 배고플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를 따뜻하게 맞아들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주었으니... 내 형제 중에 보잘 것 없는 사람들에게 극진히 대접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과 같은 것이니라.”

“내가 배고플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배고플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를 따뜻하게 맞아들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주었으니... 내 형제 중에 보잘 것 없는 사람들에게 극진히 대접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과 같은 것이니라.”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 는 뒤늦게 구원의 감격을 깨닫게 된 마르틴이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하루 동안 겪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누구는 교회로 향하고 누구는 홀로 명상에 들어가고 누구는 신학을 공부하지만 신은 사랑이 있는 곳에 있다는 말이 마음에 오랫동안 여운을 남깁니다.

“우주를 한 사람으로 축소시키고 그 사람을 신으로 확대시키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빅토르 위고" (Victor Hugo)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비법은 연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내가 매일 톡으로 만나는 사람들, 바로 그들과 사랑으로 만남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인생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라 합니다. 진정으로 멋진 사람은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낸 사람입니다. 힘든 걸 겪어내야만 인생의 달콤함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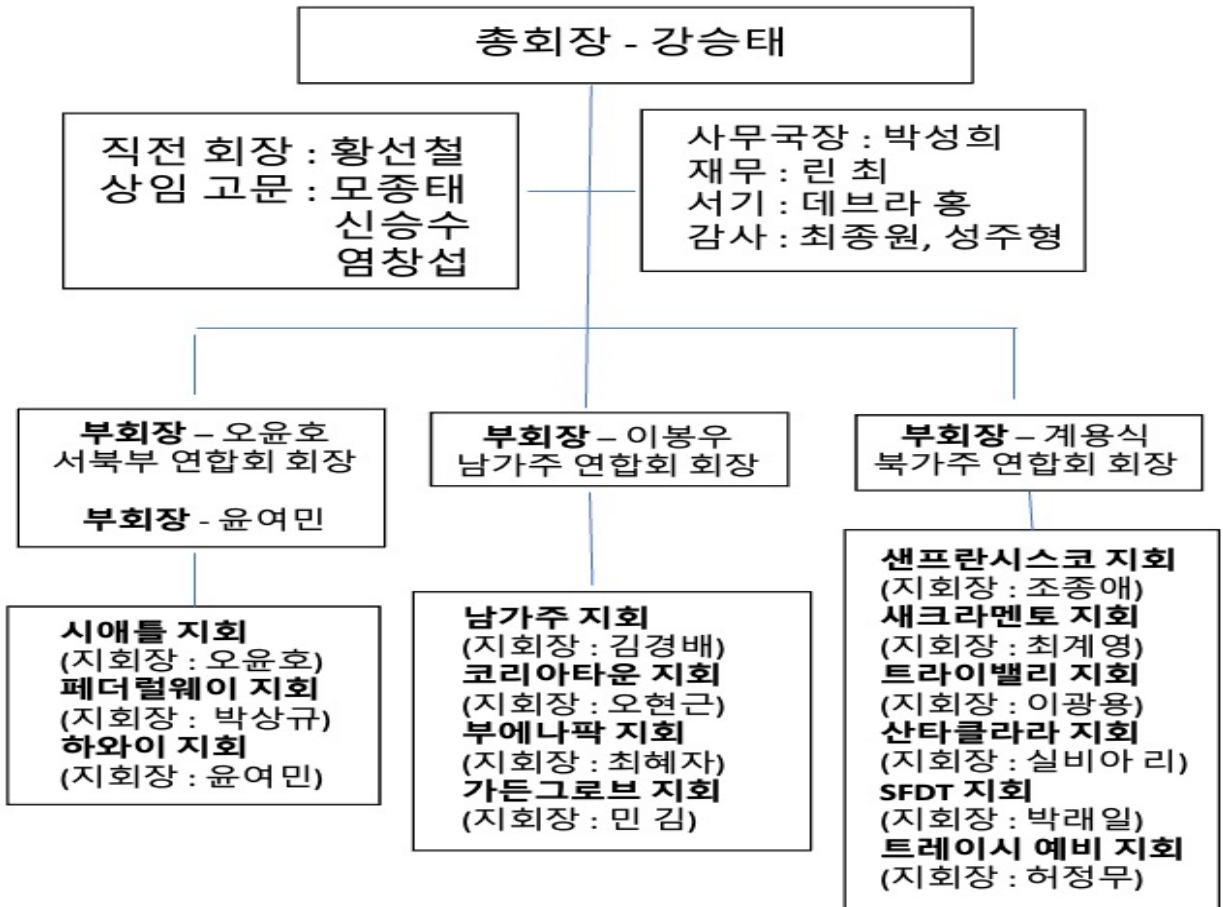
- 옮겨온 글 -

우리지회 월간 스토리

우리 지회 월간 스토리]
 연합회장님, 지회장님과
 총무님!
 지난 한 달간 지회모임을
 하셨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 귀한 사역의 이야기
 - 회원 동정 (사업확장,
 개업, 조경사)등
 귀담아 들겠습니다. 😊



미주서부 한인기독실업인 총연합회



CBMC (기독교실업인회) 목적

실업인들과 전문 직업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증거하고 기독교실업인들과 전문 직업인들이 지상명령을 수행하도록 이끌어 주는데 있다. (마태복음 28 : 18-20, 사도행전 1 : 8)

미주서부 한인기독교실업인 총연합회 (KCBMCUSA)

2024 주제 :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사 60:1)

Arise Shine

목표 : 성경적 경영과 섬김의 리더쉽 **표어 :** 100개 지회 (재) 창립 역량강화 일터복음사명

CBMC <Connecting Business & Marketing to Christ>는 일반적으로 기독교실업인회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CBMC는 1930년 미국에서 태동했으며, 기독교실업인 (사업가)과 전문인들의 모임으로 현재 전 세계 96개국에 조직되어 있습니다. CBMC는 실업인과 전문인에게 복음을 전하여 예수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증거하고 주님 지상명령을 성취하는 국제적 사명공동체입니다. 한국CBMC는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어 국내 273개 지회, 해외 130개 지회가 있으며 7천5백여 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주지역 한인들의 기독교실업인회는 1975년 남가주에서 출발했습니다. 2019년 1월25일 창립된 미주한인 CBMC 서부총회는 2020년 1월 25일 서부총회 명칭을 미주한인기독교실업인 총회 (KCBMCUSA), 2022년 10월 18일 미주 한인 기독교실업인 서부총연합회 (KCBMCUSA)로 변경했습니다. 총연은 서북부 연합회 (워싱턴, 오레곤, 알래스카주와 밴쿠버, 하와이), 북가주 연합회, 남가주 연합회 3개 연합회의 각 소속 지회로 구성돼 예수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위해 사역하고 있습니다.

CBMC 연합회 지회 모임 안내 : 비대면 ZOOM 화상 / 대면 회의 및 기도회

<p>남가주 CBMC 연합회 (연합회장 이봉우)</p> <p>남가주 지회 (회장 : 김경배) 모임 : 매주 정례 (목) / 줌 *시간 : 오전 7:00</p> <p>코리아타운 지회 (회장 : 오현근) 모임 : 매주 정례 (화) / 줌 *시간 : 오후 5:00</p> <p>부에나팍 지회 (회장 : 최혜자) -모임 : 매주 정례 (수) / 줌 *시간 : 오전 7:30</p>	<p>가든 그로브 지회 (회장 : 민 김) 모임 : 매주 정례 (화) / 줌 *시간 : 오후 5:00</p> <p>북가주 CBMC 연합회 (연합회장 계용식)</p> <p>샌프란시스코 지회 (회장 : 조종애) 모임 : 매주 정례 (금) / 줌 *시간 : 오전 7:00</p> <p>새크라멘토 지회 (회장 : 최계영) 모임 : 매주 정례 (화) / 줌 *시간 : 오전 6:30</p>	<p>트라이밸리 지회 (회장 : 이광용) -모임 : 매주 정례 (목) / 줌 *시간 : 오전 7:00</p> <p>산타클라라 지회 (회장 : 실비아 리) 모임 : 매주 정례 (수) / 줌 *시간 : 오전 7:00</p> <p>SF 다운타운지회 (회장 : 박래일) 모임 : 매주 정례 (화) / 줌 *시간 : 오후 7:00</p> <p>트레이시 예비 지회 (회장 : 허정무) 모임 : 주별 비정례</p>	<p>서북부 연합회 (연합회장 오윤호)</p> <p>시애틀 지회 (회장 : 오윤호) 모임 : 매주 정례 (목) / 줌 *시간 : 오전 7:00</p> <p>페더럴웨이 지회 (회장 : 박상규) 모임 : 주별 비정례</p> <p>하와이 지회 (회장 : 윤여민) 모임 : 매주 정례 (수) / 줌 *시간 : 오전 7:00</p>
---	---	--	---